

# 지리산 친환경 교통체계 개선 출발부터 난항

### 국립공원공단, 성삼재·정령치 일원 교통개선 설명회 주민들 친환경 순환 전기셔틀버스 운행 구상에 반발

국립공원공단이 구례군과 남원시 등 지리산 인접 자치단체와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와 정령치 일원 친환경 교통체계 개선 사업(광주일보 2022년 1월 20일자 13면 보도) 구례주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군이 인접 자치단체와 케이블카 설치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와 구례군 공무원,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성삼재와 정령치 일원 친환경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한 2차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1월 용역 계획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용역 책임연구원인 한밭대학교 성찬용 교수는 이날 27일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과 조사 기간,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성 교수는 "지금까지의 용역 결과 구례 지역인 화엄사 주차장에서 노고단 입구인 성삼재를 경유 남

원 반선까지 25km 구간과 남원 반선지역에서 정령치를 경유 구룡마을까지 25km 구간 등 공원 내 도로에 친환경 전기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례군이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와 남원시의 전기 산악열차도 비교·검토 했으나 현재 여건상 단점과 어려움이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의 구례군지리산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공단이 셔틀버스 운행에만 전제를 두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용역의 방법과 시기, 설문 대상 등이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그는 "용역의 기초가 되는 설문서 원본을 공개하고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를 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뒤 3차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호 구례군 산동면발전협의회 회장이 "다방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다시 설명회를 열어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규 국립공원공단 공원계획부차장은 "이번 용역에 환경부의 지시는 없었다. 다만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 노고단과 정령치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노고단 성삼재 주차장과 인근 도로 전경.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리산국립공원 내 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선책을 찾기 위한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상황을 잘 이해했다"며 "환경부 소관은 환경부에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각 자치단체와도 협의, 의견 수렴 후 3차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지리산 친환경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 이날 설명회와 관련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곡성경찰, 경로당 등 방문

곡성경찰이 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멈춰서·살피고·건너고·밝은색 옷 입고 외출하기, 유모차·전동휠체어 운행시 안전수칙 준수하기 등을 설명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또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안내문과 야광지팡이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 물품도 전달했다.

김경규 곡성경찰서장은 "교통약자 중심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광양시 원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강화 나서

### 원예사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광양시가 지역의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

광양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원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2023~2027년(5개년) 원예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통합을 강화하는 '광양시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의 원예산업발전계획(2018~2022)은 원예농산물의 생산, 유통, 마케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역 협업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농가를 지역

조합이나 농업법인 등의 산지 조직으로 육성해 공동선별·출하, 통합마케팅 등이 가능하도록 산지유통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기존의 원예산업 발전계획과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통합해 새로운 원예산업발전계획(2023~2027)을 세울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조직(농협, 농업법인)의 농산물 취급 비중을 높여 더욱 조직화하고, 생산과 유통의 통합수준과 품목 전문성을 강화해 시장 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농업인, 연합사업단 및 지역 농협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실 있는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원예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서영동 광양시 마케팅전략팀장은 "농업 생산 여건의 어려움과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소통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며 "농민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원예산업 발전과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보성 작은영화관 다시 봄빈다

### 하루 100여명 관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최신 상영시스템, 주민 소통·문화향유의 장

보성 작은영화관이 하루 평균 100여명의 관람객이 찾으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보성군에 따르면 2019년 4월 개관한 보성작은영화관은 개관 8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3만명을 돌파하면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휴관과 거리두기를 반복하며 관람객의 발길이 뜸 끊겼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탐견, 헤어질 결심, 한산: 용의 출현, 미니언즈2 등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영화가 개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화관 방문객이 늘고 있다.

특히 1만5000원이 넘는 대형 영화관의 관람료에 비해 7000원이라는 착한 가격도 작은 영화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성작은영화관은 최신식 상영시스템뿐만 아니라 팝콘과 음료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람 예약은 씨네시네 앱을 통한 실시간 예약과 현장 발매가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보성작은영화관 개관 시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작은영화관이 지역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문화 향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외로운 소나무와 여덟 그루 매화' '순천 송매정 원림' 전남도 문화재 지정



순천시 '순천 송매정 원림' <사진>이 전남도 기념물 제259호로 지정 됐다

송매정 터는 우산 안방준(牛山 安邦俊)이 1614년(광해군 6년) 소외(牛峯) 마을에 정착한 후 정자를 짓고 소나무 한 그루와 매화나무 여덟 그루를 심었던 곳이다.

이후 1817년 이곳에 후손 작우당 안창훈(安昌勳)이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다시 정자를 짓고 '외로운 소나무와 여덟 그루의 매화'라는 뜻의 송매정(松梅亭) 편액을 달았다.

송매정은 정자 앞에 단을 쌓고 타원형 연못에 정

사각형이 가까운 석가산을 조성해 전형적인 우리나라 전통 연못과 조경 형식을 따랐다.

정자 건축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풍광과 공간성이 정원문화의 결정체로 역사적·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과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 또한 꾸준히 발굴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의 명성에 걸맞은 자연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